RESEARCH COLLECTIONS
INSTITUTE OF ADVANCED PROJECTS
EAST-WEST CENTER 1962-63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Oriental Collection

MAY 6 '63

APR. 26, 1963

The Korean Pacific Weekly

"Established, Sept. 1913"

매금요일

Entered as 2nd class mail matter, 14 July, 1944 at the Post Office at Honolulu, Hawaii, U.S.A., under the Act of 3 March, 1897.
Honolulu, Hawaii
Add. 931 N. King St.

태평양주보

Published by
Korean Dongji Hoi
931 N. King St.
Honolulu, Hawaii
P. O. Box 15573
Ph. 850849
B. Y. CHOY, Mgr

하와이 육군부대 타이국으로 파견

한인계, 고등, 대학교 졸업생 축하만찬회를 개최

한인상업회 주최로

한국고전 우용단의 공연에 대성공

부취체역장으로 승임된 최너사

가정불화

우리지옥은 아버지와 어머니 허보할 길이 이쓰는거시 가옥읍의 사이가 조흐지못한지가 여니다 아버지가 자기어스대로 하다가 요성는 식경의 변화는 일 요케 어머니하고 위허불을 힘쓰옵니다 그리서 우리들는 七 남매는 어부나 조흐와히쓰는 지 몰라요 희망의 시이로도 참감!

저사분제 섭분에 二조는 아버지의 휘도변화에 대히서반기를 들고나쓰어요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휘도의 완화와 二조의 반대의 들을 하서보변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수시오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나와쓰요니다

우리는 또 분힘에 스바져쓰옵니다 그런데 어표친데 덕요국이는 남편을 써라 저은 고를 써라 그의 고향인 사은힘 춘이 어머니 편을 들고 나나서는 한국써에 와서 사랑이 써을 차자들어서쓰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는 남편만을 믿고 살랑하고 사랑하는 오던 주국여인이 뜻하지안 여인이 처음 차자는 고스 은 선은들을 니버려두고 나 호자 캐 남편마자 변사하게 되자 남편의 고향 경남남 고 성 만의 힘우북을 위하여 유학 여아하 五,六도의 호학과 여학 가는거스을 주져하고 이쓰니 수가로이 쓰아지는 비를 맞 아원에서 보니오면 하보니다 그러나 버보불사 고아가 아니니스가 고아원에서 밧아줄리가 업게쓰지요

우리들에게 무슨 죄가이쓰 불화한 집에서 더상로 시프지가 안으며 집에들어가고시프지도 아옵니다

저는 이진의 장남 이남니다 지금 미국에 유학가려고 이서 이러한 방법을 밧들거스 이가요? 어른들의 휘도에구 호를 눗기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지 아모학고 위

상과구걸로 중국여인이 한국의 시부모님을서마거

지금부터 二十二년전한 ||十一년전 사망| 씨의 뒤 국인 남편을 써라 저은 고를 써라 그의 고향인 사은힘 춘이 어머니 편을 들고 나나서는 한국써에 와서 사랑이 써을 차자들어서쓰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는 남편만을 믿고 살랑하고 사랑하는 오던 주국여인이 뜻하지안 여인이 처음 차자는 고스 은 선은들을 니버려두고 나 호자 캐 남편마자 변사하게 되자 남편의 고향 경남남 고 성 만의 힘우북을 위하여 유학 여아하 五,六도의 호학과 여학 가는거스을 주져하고 이쓰니 수가로이 쓰아지는 비를 맞 아원에서 보니오면 하보니다 그러나 버보불사 고아가 아니니스가 고아원에서 밧아줄리가 업게쓰지요

우리들에게 무슨 죄가이쓰 불화한 집에서 더상로 시프지가 안으며 집에들어가고시프지도 아옵니다

저는 이진의 장남 이남니다 지금 미국에 유학가려고 이서 이러한 방법을 밧들거스 이가요? 어른들의 휘도에구 호를 눗기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한지 아모학고 위

(「아버지가 오랜만고 대단합니다 또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오랜만고 대단합니다 지가 경제 권을 가져쓰니스가 부의 화권가 우리들 자식의 의견이나 권게에 의힘서 이루어질 성질의 거스인니스가? 부모님들의 문제를 자기들 스기리 힘겨할 거스이지 지금 와서 자식의 의견을 물 지거하다고 성가합니다 부모님들의 희생을 비는 말을 가져보지만 이거스이 성고하지 못할써 우리 들의 가르고스은 어디 이니스가?

나는 이러한 니옹의 가정 상 답을 받오이로 이쓰다 (서울지법 소년부 지원장)(경향신 사설)

민영이관 시지 현정부를 유지 린생보실장발표

동경이(그도) 十七이라발 간 파도저우 르 서리한다 서울반오주에 이하면 한 는거스) 회의가 업는 인이는 시랑장은 十七일 상오 (조부의 기구를 유지하자는데 다 아고도동의 노력로써 민정 유과가이 지술 한 여쓰다 아과이 년니에 가는하고 이쓰 九원에 지술 한 여쓰다

四·八성명의 전후

예측불허하는 정계개편

(경향신문 에서 ||)

국민투표를 九월달에 지나간 四일에 이상은 제三차 조야시루자 회의에서 그 二차 야측의 대안을 처리되기에 이르러서는 一면 투쟁의 양면작적 전술을 취하면서 二十六일로 선과 국민투표 보류를 들고나온 소장 적의 인동은 군정연장을 저지하기 위한 최고회의 미츠군 부강경과와 이를 견사바대 하고나온 야측의 강경안과 를 비교되어쓰며 아울로 대두되 이러한 에서 일단 락착을 정계개편의 니요온 무어스이냐하는 문제가 이스다 그리고 이 성명에대로 모든것스 이 진행되는경우 박의장 되 대통령 출마성과 고화 되 지분제가 이쓰고 울는 신 허정씨의 위치미츠 무소속계 실력 정치인의 거취 문제에 년말선거에 대비한 여야간의 계속적이인 협상 문제등이 성숙온 문제정로 부각되어져서 닥교한 정세를 위겨 하기위 청와대에서 박길룡 허 정상회담이 여러기 전년 축 인 지난달 二十九일 박 준규 엄민영선생 신상호 김치 순 김용선생씨등 각정파의 소장 정치인 五十여명 온 「지금 사가지의 모든 성명을 기 달대기한 (十二월 二十六 일) 니에 민정이양을 하자는 신국수주의자는 조야양측에 니노후 이나다 에 니노후 이나다 「十二월 二十六일」 이라는 헌법(성의 절 업단 고 싹 대기하온 조야가의 현사상선 담 나가서 라이후의 사상온은 어느 이 나후 이 라는 헌법 (

RE[illegible] INSTITUTE OF [illegible] ED [illegible]ECTS
EAST WEST CL[illegible] 1962-63

태백산에 전기불

(三면에서 계속)

지난 가을에 시작된 이바위 [illegible] 지난 四월 [illegible] 二일스가지 완전히 고산골 [illegible] 이런 운동을 뒤에서 밀어주는 다체는 [illegible] 이학대 저학성 [illegible] 이사들은 뜻 [illegible] 이 [illegible] 이 [illegible] 이